

2020 서울 합격 수기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재수로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초수 전공45 교육학13.33 총합 58.33

재수 전공52 교육학15.67 총합 67.67

저는 합격수기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합격수기를 보면서 좋은 점들을 챙겨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위상미술만 2년을 들었습니다. 초수때는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이라 공부를 많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오르지 않아 중간에 포기할까 했지만 같이 스터디하시던 선생님께서 초수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짝스터디 하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지연쌤께서도 끝까지 가본 사람이랑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랑은 다르다면서 끝까지 완주해본 경험이 내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전국 어디든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다른 지역은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좀 더 있었다면 초수합격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수이신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마인드 컨트롤★★★

초수때에도 제가 "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마음 가짐을 갖고 있었다면 합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 안될거야, 4학년 재학중인 초수생이 어떻게 서울을 합격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정적인 체면을 걸었습니다.

재수때엔 내가 합격한다!!내가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어? 나만큼 참고사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재수때 **시간강사**를 하면서 교무부장님과 교감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꼭 우리 학교로 발령받아 왔으면 좋겠다고 해주셨습니다. 학생들과도 잘 지내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학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한 채 4월전국모의고사를 봤더니 7등을 하였습니다. 저의 작년 시험응시경험이 헛된 것이 아니고 제 안에 지식이 쌓여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럭키7이라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7월전국모의고사(수강신청하듯이 광클해야합니다^^)에서 전국 상위1%, 전체에서 3등을 하면서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교육학>

교육학은 저의 취약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웠습니다ㅠ 그래서 초수때엔 20점밖에 안되고 나중에 7월쯤 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전공만 들었습니다. 장지연쌤과 상담때 당장 교육학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듣고 3월부터 교육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ㄱ쌤 1~2월 기본이론을 듣고 5~11월까지의 ㅇ쌤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수때 ㄱ쌤 커리로 3.4월, 7월부터 하반기패키지 직강을 수강했습니다. 직강 아침에 8시까지 와서 마인드맵 인출 스터디 진행하였습니다.

<전공 공부법>

교육과정은 백지쓰기나 노래로 통째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단순암기가 어려워서 초수, 재수 때 모두 암기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년동안 단순 암기로 물어보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지연쌤이 강조하시는 부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만의 공부법★★

1. 기본서에 단권화 하였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위상쌤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응용하였습니다^^

5.6월 모고는 가장 눈에 잘 띄는 핑크색 형광펜

7.8월 모고는 여름하면 바다가 연상되니 하늘색ㅎㅎ

9.10월 모고는 연두색 형광펜으로 체크하여 한눈에 몇 월, 몇 주차 모고에 나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모양 스티커를 구입하여 내가 틀린건 빨간색별, 중간정도 아는 내용은 노랑색,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파란색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서브노트는 따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백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도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결국 포기했습니다ㅠ

가장 효과적인 공부방법은 1~2, 3~4월 이론 강의에서 위상쌤과 장지연쌤이 칠판에 판서해주신 내용을 합쳐서 A4사이즈 노트에 정리하여 여러 차례 회독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상쌤과 장지연쌤 수준처럼 안보고 판서할 수 있을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도를 말로 설명해보기도 하고 따라 적어보기도 하였습니다.

2. 3~4월 심화프린트를 기준으로 5월부터 시작한 스테디입니다^^

동시접속하는 방법은 제가 고안해낸 아이디어였는데, 게으른 성격을 가진 제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심화프린트기준+기본서도 같이보기>

- 월-미술교육론,교육과정,감상비평
- 화-동양.한국미술사.한국조형사
- 수-서양미술사1.2
- 목-표현1.2(조형요소.원리.회화.판화.조소)
- 금-표현3.4(디자인.공예.서예)

<스테디 진행 방법>

- * 월~금 오후11:00부터
- * 11:00 각자 2문제씩 출제
- * 11:15 문제의 답 백지써서 댓글로 올리기
- * 11:20 각자 낸 문제의 모범답안 작성. 올리기

생활관리

저는 잠이 진짜 많은 편이라 하루 14시간도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상반기에는 따로 기상 스테디를 하지 않고 9시쯤 자유롭게 일어났습니다. 8월쯤부터 교육학 짝스테디 하시는 분과 함께 아침 6시반에 기상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먼저 전화를 걸어주셔서 저는 진동으로 해두고 베개 밑에 핸드폰을 두고 잤습니다. 그러면 진동이 울리면서 깰 수 있었습니다.

스테디플래너는 아래와 같이 30분 단위로 직접 제작하여 매주 프린트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부장소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초수땐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책들을 찾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졸업한 이후에는 일병행할땐 스타벅스에서 틈틈히 공부하거나 집에서 했습니다. 7월말에 일을 그만둔 후에는 매일 노량진으로 출퇴근 하는 느낌으로 통학했습니다. 노량진 **희소 자습실**을 많이 이용했는데, 저는 장의존적인 성향이라 주변에 다른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자극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관리를 위해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홍삼정 에브리타임**을 먹으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홍삼 잘 받으시는 분들은 꼭 챙겨드세요~

그리고 오래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다이소에서 파는 도넛모양 방식으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학원 강의실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방석은 필수인 것 같아요~

노량진에 맛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맛집다니는 걸 좋아해서 노량진에 온 제 자신을 위해 밥은 꼭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맛집 추천 리스트>

- 희소 이데아관 길 건너 '짬뽕의 전설' 맛있어요!!짬뽕도 맛있고, 쟁반짜장면, 꺾바로우도 맛있습니다^^
- 제가 가장 많이 가고 좋아하는 쌀국수집은 이름이 생각안나는데 수산시장방면으로 가면
- 이든 돈카츠(겉바 속촉)
- 육수당(무난하게 다 맛있음)
- 미정국수(제육주먹밥,명란주먹밥과 미정국수, 청결하고 좋아요!)
- 신내떡(떡볶이 맛있어서 처음 맛봤을 때 1주일에 3번 먹었을 정도로 중독성 있어요 ㅎㅎ)
- 커피는 매머드 커피가 저렴한데 구수한 맛의 원두라 좋아요~
- 내짬닭이랑 안동짬닭도 맛있어요.
- 이름은 기억 안나지만ㄱ 족발집에서 파는 보쌈정식도 맛있어요.

초수vs재수

1~2월	주5일 미술학원 전임강사를 하는 재수 라 토요일 직강만 겨우 참석함.	마음껏 놀러다니고 가끔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며 기간제와 시간강사 원
------	---	--

	1년간 시험직전까지 주 2회 3시간 영어과외봉사를 함. 평일엔 아예 공부를 못함.	서접수하러 다님. 그러나 구하기 쉽지 않자 작년에 일하던 미술학원에서 일함.
3~4월	학교 개강과 교생실습준비로 정신 없이 보냄. 1~3시간 공부. *금요일엔 전공필수과목 수강으로 인해, 직장은 토요일만 참석함.	집 5분거리 중학교에서 시간강사에 합격하면서 two job을 뛰게 됨. 3~4월 강의부터 직강 수강하기 시작! 부산 응시하신 선생님과 매일 밤 1시간씩 이론내용 서로 읽고 설명해주는 스터디 진행. 이 쌤께서 장지연쌤과 위상쌤의 말을 거의 그대로 필기하셔서 다시한번 이론 강의를 듣는 효과와 놓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음.(정말 감사합니다♡!)
5~6월	교생 끝나고 돌아오니 밀린 과제와 팀플이 많아서 거의 임용공부를 하지 못함. 5~6월 강의가 가장 중요한데 듣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됨.(5~6월강의는 꼭 들으시길!) 평균 1~3시간 공부	시간강사+학원강사 병행하며 밤에 전화스터디를 진행함. 부산 선생님과 너무 잘 맞아서 주 1회 모고 복습 전화스터디 진행(서로 한문제씩 돌아가며 설명해주기) 월~금 밴드스터디도 진행함!
7~8월	종강하고 이 기간동안은 노량진에 독서실 등록하여 노량진으로 출퇴근함. 위상쌤과 상담 후 1~2월 기본이론강의 를 한번 다시들음.(초수에게 강추!확실히 두번째 들으니 이해도가 달라요!) 이때 상담에서 위상쌤이 위의 공부법도 알려주심.	7월 중순 모든 일을 그만두고 노량진 자습실로 출퇴근하며 올인하시는 분들처럼 공부량을 늘려나감. 교육학도 하반기 패키지로 김현쌤 직강을 수강함. 등수가 올라오니 자극이 많이 되어 좋았음. 그래서 첨삭채점하는 주에는 모고를 열심히 풀었지만, 채점 안하는 주에는 문제를 풀지 않음.
9~10월	개강하면서 졸업작품을 해야하고 교직과목도 수강해야해서 바빠짐. 집근처 프리미엄 독서실을 등록하여 혼자 공부함. 4~6시간 공부	자습실에 사람이 많아져서 기분전환겸 이데아관 바로 옆 설빙 위층에 스터디 카페에서 한달간 공부함. 창가자리 부가 좋아서 추천ㅎㅎ. 10월쯤에 슬럼프가 와서 항상 20등 안에 들던 모고등수가 70등까지 한번 떨어짐. 장지연쌤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다시 멘탈 회복하여 심기일전함.
11월	집 근처 독서실 다니면서 시험 직전까지 학교와 봉사활동함. 8~9시간 정도 공부.	최소10시간 이상 짝으려고 했고 12~14시간 정도 공부함. 가장 몰입해서 공부해야하는 시기★

<2차 준비>

노량진 사ㅇ스ㅎ실기학원에 갔다가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1차합격 이후에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묘는 서지원쌤께 배웠습니다. 배경에 파스텔로 대나무를 그리는 연습을 하였는데 시험 주제에서 자유롭게 배경을 표현하라고 하여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아는 쌤을 따라 사ㅇ스ㅎ에 등록했다가 저와 너무 맞지 않고 디자인강사쌤의 실력이 너무 없어서 사ㅇㅇ으로 옮겼습니다. 사ㅇㅇㅇ가 서울 디자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서울 기출 주제인 성찰과 표현을 모의문제로 다루봤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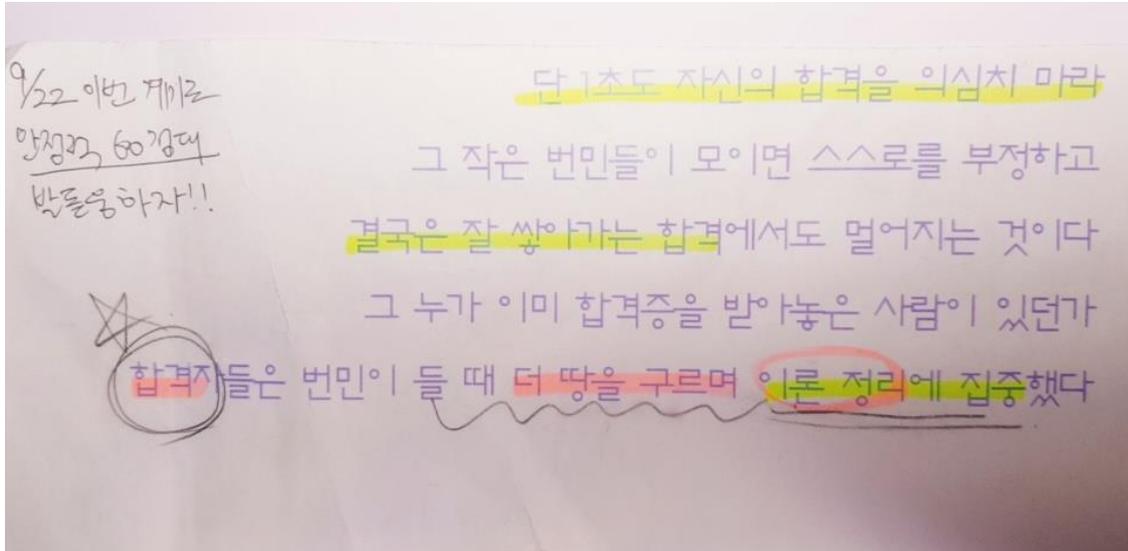
저는 사실 초수땐 당연히 안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한번도 안해본 디자인만 1달 다녀보았고 2차준비를 전혀 안했습니다. 재수때 다 처음해보는 것이었는데 2차강의를 뒤늦게 수강했습니다.

수업실연은 스터디를 구해서 주3회 실시했습니다. 저는 경기2분, 충북1분과 함께 했는데 셋 모두 1차를 합격해서 2차 시험 직전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들 시간강사나 기간제 경험이 있어서 실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스터디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스터디에서 사회참여나 융합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다고 이 두 가지만 연습을 많이 하였는데 운 좋게 연습해봤던 융합이 나왔습니다^^

면접은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진행하였습니다. 국어1분, 수학1분, 화학1분, 저 미술 이렇게 넷이서 진행하였는데 수학쌤께서 2차경험이 2번이나 있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있으신 분들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마음 카페에서 직접 모집해보세요^^각자 나올만한 문제를 실제 시험처럼 구상형2개 즉답형1개 추가질문2개씩 만들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이 현재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모의 문제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와서 놀랐습니다ㅎㅎ

이번 서울 2차 면접 문제에서 인성을 기르기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여쭙보셨습니다. 저는 인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모범을 보이는 태도를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할 때나 그만둘 때에도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예의있게 양해를 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상쌤과 장지연쌤 모두 수강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위해주시기 때문에 두분에게 간혹 반말을 하는 등 너무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사오TV** 라는 채널에서 공부법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현직 교사분들 채널 중에도 2차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너무 많이 보는 건 좋지 않지만, 적당히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위상쌤 명언들을 모아서 계속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위상쌤과 장지연쌤**이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저의 고민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던가, 인생철학에 대해 조언도 들으면서 저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상쌤과 장지연쌤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신다면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